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朴 同 烈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동 0/T 411호
Tel: (051)245-7551 ~ 3, FAX: 245-7550
홈페이지: www.kyungnam.or.kr
인쇄처: (주)동방인쇄 (051)636-9477
在京同窓會=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북빌딩 504호
Tel: (02)783-0071 ~ 2, FAX: (02)783-0073

본부 39차 定總...박동열 (8회) 새 회장에



박동열 신임회장(오른쪽)이 조대제 회장으로 부터 동창회기 ■ 받으며 '모두 함께 뛰는 동창회'로 도약하겠다는 결의 ■ 보이고 있다.

임회장에게, 류영렬 고문(3회·왕도 대표)은 조대제 회장에게 각각 축하꽃다발을 전달했다.

조대제 회장은 앞서 김경희 재경고문에 게 용마대상을 수여한 후 지역동창회 발전에 헌신한 김희철(3회·전 대구회장)·정원준(3회·전 울산회장)·안중무(6회·전 마산창원회장)·강재화 동문(9회·전 대전회장)에게 공로패를 각각 수여했다.



김경희 재경고문(오른쪽)이 용마대상을 받고 있다.

용마대상 김경희 고문 공적

제10회 용마대상을 수상한 김경희 동문(9회)은 재경동창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고문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본부동창회 포상위원회가 심사한 이번 용마대상 후보자 공적서에 따르면, 김 동문은 1965년 이래 17년 간 재경 총무직을 맡아 헌신했고, 이후 13년 간 부회장(수석 부회장 2년 포함)과 2년 간 회장으로 봉사하는 등 척박했던 초창기 동창회의 기반을 닦고 용마가족의 응집 및 유대를 촉진하는데 신명을 바쳤다. 특히 타고난 애살과 집념이 강한 김 동문은 '경남중고동창회보'의 창간호에서 204호까지(1968~1988년 재경 제작 시절) 기획

올해 용마대상 김경희(9회) 재경고문 수상

지역활성화 김희철(3회) 등 4명·홈커밍 유공 정창환·명호근(15회) 등 6명 공로패

우리 본부동창회 제27대 회장에 박동열(8회·해운대성심병원장) 수석부회장이 선출됐다. 그리고 동창회 최고상인 제10회 용마대상은 재경동창회장을 역임한 김경희 동문(9회·용마공영 대표이사)이 수상했다. 지난 3월 12일 부산 코모도호텔 총무홀에서 열린 본부동창회 제39차 정기총회를 주재한 조대제 회장(7회·협성개발 대표이사)은 개회사를 통해 "용마가족의 역량결집으로 성취하게 될 '영광 재창출'을 위해 전력투구할 새 집행부에 뜨거운 성원을 쏟아달라"고 말했다.

한 회장선출회의에서 만장일치의 신임을 받아 동창회기를 인수했다. 박 신임회장은 인사를 통해 "국내외 용마가족의 단결을 바탕으로 '열린 동창회·화합하는 동창회·발전하는 동창회'가 되게끔 신명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대제 회장과 김봉길 제8회동기회장은 박동열 신

"더욱 화합·도약하는 동창회로" 박동열 신임회장 취임 인사

또 홈커밍데이행사 성공적 개최에 헌신한 정창환 명호근(15회 부산-서울 회장)·조광도 박영안(25회 부산-서울 회장)·정윤성 정충길 동문(35회 부산-서울 회장)에게 각각 공로패를 수여했다. 용마대상을 받은 김경희 재경고문은 "이 귀중한 상을 가보로 삼겠다"며 "모두 함께 뛰는 동창회가 되도록 결속하자"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영광 재창출 위해 결집을" 조대제(7회) 본부회장 개회사

이날 오후 6시30분 정행권 부회장(9회·부산가스개발 대표이사)의 개회선언으로 막을 올린 총회는 40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 제27대 집행부를 출범시켰다(사회 최득호 사무국장-11회). 총회는 고문단 회장단 감사 지역회장 주요기관장 동문 등 소개, 국민의례 교가제창 유공자 표창, 회장인사 권오현 고문(1회) 격려사 이상택 재경회장(13회) 축사 김경희 용마대상 수상자 소감발표, 의안심의, 축하케이크절단 축배(김근준 고문 선창) 만찬 등 순으로 진행됐다.

권오현(1회) 고문 임시의장 말마 이상택(13회) 재경회장 축사

특히 제27대 본부회장에 선출된 박동열 동문은 권오현 고문이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



지난 3월 12일 오후 코모도호텔 총무홀에서 열린 본부동창회 제39차 정기총회.

지역·직능 회장·정계·법조계·교육계 등 기관장급 동문 다수 참석

이날 본부고문 및 임원단에서는 권오현(1회·한나라당 부산시후원회장) 김근준(1회·경남학원장) 송두호(3회·전 국회의원) 류영렬(3회) 우명수(5회·부산예술문화대학장) 정소영 고문(6회·유니온차과병원장) 등, 조대제 회장을 비롯해 박동열(8회) 정행권(9회) 박한복(9회·신생의원장) 이상택(13회·효산의료재단 이사장 겸 안양병원장) 한병조(13회·법무사) 박병선(14회·신홍모직공업 대표) 한규현(14회·부산정보대 교수) 한혜수(15회·모짜르트 대표) 송규정(16회·윈스텔 대표) 권철현(19회·국회의원) 남진현(19회·콜맨 대표) 박재상(22회·천일고속 대표) 박명진 부회장(33회·고려종합토건 대표)과 방봉우 감사(10회·이원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 법조계에서는 정종원 부산지검장(17회) 양승태 부산지법원장(20회) 박성철(23회) 및 서복현(30회)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교육계에서는 김향운 경남고 교장(13회) 이승무(26회)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부산시에서는 노기태(20회) 정무 및 오거돈(21회) 행정부시장 등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재경에서는 김경희 고문(9회) 이상민 총무(36회) 등, 울산에서는 김형수 회장(14회·대호산업 대표) 등, 대구에서는 조규중 회장(15회·조규중차과의원장) 등, 마산-창원에서는 김재근 회장(19회·동마산병원장) 등이 축하했다. 또 직능회에서는 한동대 용마산악회(9회) 한동대 신경정신과의원장) 이창대 경총회장(12회)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17년 간 총무직...긋은 일 도맡아 부회장 13년 맡은 후 회장에 회보 창간호~204호 제작 관여 기별야구 등 각종 행사 산파역

모교야구부 서울 전국대회 지원 재경 부산지역 고교협의회장도 취재 등에 깊이 관여, 용마가족의 자긍심 고취와 일체감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또 30년 넘게 모교 야구부의 서울 전국대회 출전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 했고, 기별야구대회를 비롯해 용마테니스 및 바둑대회와 용마펜클럽 등 각종 행사의 산파역을 맡아 오늘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해외지역동창회의 결집력 및 활성화 강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했고, 재경 부산지역 13개 고교 동창회협의회의(만남과 사랑의 회) 회장직을 수년 간 맡아 우리 동창회와의 친교를 맺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김 동문은 이 같이 40여 년 헌신·봉사함으로써 우리 동창회의 산증인이자 재경 동창회의 '정신적 지주' 중의 한 용마로 평가되고 있다.

박동열 본부동창회 27대 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본부동창회 회 장 박동열 이 사 문 국 이윤조 장혁표	수석부회장 문 국 부회장 안중열 이상목 이태호	재 무 최윤식 이 사 구본섭 김기혁 김문각 김상곤 김시경 김을환(감만) 김일곤 김재범 목용성 문동현 박세창 박소현 박영우 배기현 배덕수 백옥현 서석동 설태규 성해원 신경화 심재두 심재홍 엄덕량 우동천	이동근(보수) 이동근(망미) 이성호 이병재 이상구 이장성 이창우 이희욱 이호원 임금식 임을수 장길영 장희준 정금출 정인호 조봉석 조성래 조대준 최경태 최낙병 최해근
동기회 고 문 김정곤 공상태 노선태 박동열 이윤조 이춘기 장혁표	감 사 강성도 안병권 총 무 도은영		재경동기회 회 장 강성태 산우회 회장 김영철 잔디회 회장 이창근 팔선회 회장 이유환

제 8 회 동 기 회

용마가족 여러분. 본부동창회 제27대 회장직을 수락하고, 6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용마호'의 부단한 항해를 새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순풍의 향진만을 기대하지만, 때로는 황천(荒天)항해의 시련도 예상합니다. 그러나 국내외 용마가족의 결집된 역량이 끊임없이 용솨음치는 한 이는 반드시 극복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임기 중 역대 회장님들이 구현해 온 '열린 동창회·화합하는 동창회·도약하는 동창회'를 더욱 견실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며 열정을 쏟을 것입니다.

이 같은 명제를 계속 성취하려면 먼저 우리 동창회의 자긍심과 위상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승화시키고, '맥빠져 있다'는 동창사회에 활활 번져 나가는 들불 같은 기세를 불어넣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동창회의 자긍심과 위상 제고는, 우리 용마가족이 기세등등하게 디지털사회에 걸맞은 사고를 펴면서 '모두 함께 다시 뛰는 저력'을 과시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취임사

박동열

본부회장(8회) · 해운대성심병원장



활력 재충전 다시 비상을

다. 또 동창사회의 패기(霸氣) 분출은 전후좌우를 저울질하지 않으며, 거시적·긍정적 인식과 뜨거운 형제애가 씨줄과 날줄로 튼실하게 엮어질 때 이뤄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용마가족이 패기를 살릴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의지를 앞세워 발품을 팔 것입니다. '홀어지고 식어가는 동창회'라는 말을 더이상 듣지 않기 위해 응집력과 재충전력을 강화하는 데 신명을 바칠 각오입니다.

국내외 용마가족의 합성이 만인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는 동창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희생과 봉사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용마가족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더이상 기죽지 말고 당당합시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땀시다. 용마정신으로 찬 '잠재력의 그물'에 담긴 '새로운 영광'을 양망(揚網)하기 위해 모두 항구에 모이고 '후라경고!'를 목이 터져라 외칩시다. 얼싸안고 뜨거운 우정을 나누며 잃어버린 '넉넉함'을 되찾읍시다.

우리의 뱃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 길을 지속시키려면 첫째도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성원'이며 둘째도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성원'이 활력소로 응축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식을 전환하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동창회로 만들면 결속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어 새롭게 도전하면 도약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편향과 독선 등을 버리면 화합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해질수록 용마가족은 서로서로가 울타리가 되고 '구덕동산'에서 키운 순수한 마음을 늘 간직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합시다.

이와 같은 공감대가 확산될 때, 모교의 명예선양과 동창회의 위상제고는 지속되며, 이러한 자긍심은 머잖아 탄생될 '모교 60년사' 속에서 고동치며 숨쉴 것입니다.

용마가족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정홍원(17회) 부산지검 검사장

정홍원 동문(17회·사진)은 광주지검장 재임 중 최근 부산지검 검사장으로 취임했다.



성균관대 법정대를 나와 사시(14회)에 합격, 검찰에 투신한 정 동문은 검사생활 대부분을 특별수사분야에서 활약해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다.

업무처리에 빈틈이 없고 공사가 분명하며 성품이 소탈해 선후배들에게 신망을 얻고 있다. 용마가족의 애로사항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형이다. '히로뽕에 관한 소고' 제하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바둑을 즐기는 정 동문은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서울지검 특수1부장·부산지검 1차장·서울지검 남부지청장·광주지검장 등 역임.

양승태(20회) 부산지법 원장에

얼굴



검찰과 사법부의 두 중견 동문이 부산지검·부산지법의 사령탑을 맡아 용마가족에게 검경사를 안겨주었다. 정홍원(17회) 부산지검 검사장과 양승태 부산지법원장(20회)이 화제의 주인공.

두 동문은 한결같이 "동창회와 용마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태 동문(20회·사진)은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재임 중 최근 부산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시(12회)에 합격, 판사의 길로 들어선 양 동문은 재판관용 및 사법행정 개선 등에 크게 기여했으며,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으로 선후배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다.

양 동문은 말수가 적으나 온화한 성품이라 주위에 친구와 따르는 후배들이 많다. 음악을 즐기고 동창회 크고 작은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사법문제로 고민하는 용마가족을 잘 보살피겠다. 양 동문은 제주지법과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부산고법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서울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박영무(15회) 사법연수원 원장 발탁



박영무 동문(15회·사진)은 대전고법 원장(특허법원장 겸임) 재임 중 최근 사법연수원 원장으로 발탁됐다.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시절 사법개혁을 주도해 법복을 바꾸고, 대법-대한변협 간 정기간담회를 여는 등 '열린 법원'을 구현했다는 평을 받았으며, 행정·특허법원 개원 준비에 핵심역할을 했다.

자연산 광어회 "입맛 울려요"

제26회 월례회 풍성

제26회동기회 2월 정례회가 지난 2월 19일 오후 7시 부산 사하구 당리동 '보미초밥'에서 사이육 월례회와 함께 열렸다.

김성환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30여 명이 참석했다.

동문들은 자연산 광어회와 성게알 광어 미역국 등으로 포식을 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시(8회)에 합격한 이래 청주지법 부장판사·부산과 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지법원장·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권오병 전 문교부장관의 사위인 박 동문은 소탈한 성격으로 친구와 선후배 사이 인기가 높다.

문원경(22회)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문원경 동문(22회·사진)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재임 중 최근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발탁됐다.

서울대 물리학과와 환경대학원을 졸업했고 한양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공학을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17회)에 합격, 부산 서구청에서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통영군수·경남도 지역경제국장·대통령 비서실·내무부장관 비서관·진해시장·지방행정연수원 기획 및 교수부장·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행자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등을 역임했다.

권오현 본부고문(1회) 한나라당 부산지부 후원회장



권오현 본부고문(1회·경성대 이사장·사진)은 지난 3월 7일 한나라당 부산시지부 후원회 회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같은 달 22일 오후 3시 부산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후원회를 개회했다.

다. 부산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권 고문은 부산일보 편집국장·이사·주필·상무 및 전무이사·사장·평통자문위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황갑생 회장 유임시켜 4회 총회...집행부 재신임

제4회동기회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시 부산역 앞 교원아카데미빌딩 뷔페식당에서 2002년 정기총회를 열고 황갑생 회장을 유임시켰다. 황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임원을 개선, 집행부를 재신임했다.

△법원

박영무(15회) = 사법연수원장
양승태(20회) = 부산지방법원장
김경중(27회) =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김승대(29회) = 헌법연구관(1급)

△검찰

정홍원(17회) = 부산지검 검사장
김수민(26회) = 춘천지검 차장검사
이영우(27회) = 창원지검 차장검사
문규상(27회) = 부산지검 특수부장
이춘성(28회) = 광주지검 검사(미국 유학)
김인호(28회) = 서울고검 검사

옥준원(28회) = 인천지검 형사5부장
조한욱(29회) = 서울동부 형사1부장

△기획예산처
박봉흠(21회) = 차관 발탁

△행정자치부
문원경(22회) =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교육인적자원부
문형남(20회) =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박경재(26회) = 교육정책 심의관
임상현(29회) = 국제교육협력과장

△특허청
이성재(20회) = 특허심판원 심판장

△해양수산청
양태운(20회) = 인천항 건설사

무소 계획조사과장
박성표(24회) = 인천신공항 건설기획단장
박중국(25회) = 어촌어항공과장

△경찰청
김사권(18회) = 부산 남부경찰서장

강대형(19회) = 본청 감사과장
송민호(24회) = 본청 방범지도과장
이명규(24회) = 서울 수서경찰

서장
성경출(25회) = 부산 서부경찰서장

△상공계
박영주(14회) = 이견산업 회장.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한국위원회 위원장 선임

△빙송계
이금희(18회) = 대구문화방송 사장

△의약계
이정중(25회) = 부산시 한의사회 회장



최근 단행된 사법·행정부 등의 인사에서 많은 동문들이 영진되고 전보돼 용마가족의 자긍심을 드높여 주었다. 직능별 동문은 다음과 같다.

기별 낚시대회 4월 21일 열려

경남 저수지에서
1인 대낚 2대로
붕어만 낚아야

제13회 기별대항낚시대회(주최 : 본부동창회-회장 박동열·주관 : 경수회-회장 진경일)가 오는 4월 21일(日) 예년과 같이 경남지역 저수지에서 열린다. 본부 행사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대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붕어' 낚기만으로 하고, 이를 위해 선수 각자는 대낚시대 2대(릴·삼봉 제외)로 기량을 겨뤄야 한다.

▷경수회 집행부



1팀3인 구성 출전
단체·개인 등 시상
4월 6일 신청마감

또 각 동기회는 '세 선수로 한 팀'을 구성하되 반드시 1팀 이상 출전해야 하고, 신청 마감은 오는 4월 6일(土) 낮 12시까지이며, 본부사무국(TEL : 051-245-7551~2·FAX : 051-245-7550)에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팀당 10만원이고, 단체전 1~3위·개인전 1~3위·조별 개인전 1~3위에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지난 3월 10일 '500회 등정' 기념산행에 나선 일철산우회 남녀 산우들이 구덕산에서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 기념자축연을 벌였다.

일철산우회 '500회 등정' 쾌거

"우리 사전에는 '중단'이 없다"
일철산우회는 '500회 등반'이란 동창회 산악회 사상 초유의 '최고'를 수립했다. 이는 지난 1987년 5월 3일 9명이 화왕산에서 발기대회 겸 1차 산행대회를 개최한 이래 15년이 지난 현재 64명의 대가족으로 신장 시킨 집념의 결실.

그동안 연인원 1만 3,000여 명이 정상에서 '야호'를 외쳤다. 불굴의 도전사가 아닐 수 없다.

제17회동기회(회장 정해전) 일철산우회는 지난 3월 10일 구덕산에서 이견우 산우회장을 비롯, 동문가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00회 등반 기념대회'를 열었다.

이날 봄이 피어오르는 구덕산 능선은 '원색의 용마기상'으로 수놓아졌다. 일행은 오전 12시 구덕산 정상에서 "후라 경고!"와 "야호!"를 연창한 후 하산, 약수터에

서 도시락파티를 열었다. 이날 산행대장은 김무부 동문이 맡았다.

오후 6시, 부산진구 범천동 제일빌딩 '제일뷔페'. 일철산우회 500회 등반 기념 자축연회장은 130여 명의 용마가족이 참석해 초만원이었다.

87년 5월 9명 화왕산 첫 도전 현재 64명 최다식구로 늘어 자축연 열고 '한가족' 확인 98년 48회 감행 '최고' 기록

이견우 산우회장이 주재한 자축연은 신정아 총무의 사회로 경과보고(하영수 준비위원장) 내빈 및 역대회장과 총무 등 소개가 있었다. 이어 산우회장과 동기회장 인사·본부동창회장(최득호 사무국장 대독·11회)과 본부 용마바둑회장(한병조·13회) 축

사·유공자 표창 만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산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5년 간에 걸친 500회 등반기록은 일철산우회 산꾼들의 도전정신이 종횡으로 응집된 결과"라며 "이 정신이 우리 동창회의 발전에 직결되는 활력소가 되게끔 다시 열정을 불태우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준비위원회에서는 참석자 전원에게 최고급배낭을 선물했다. 자축연은 부인노래경연과 동문장기자랑 등으로 이어진 끝에 오후 8시30분 산회됐다.

한편 일철산우회는 '500회 등반'을 기록하는 사이 가깝게는 금정산에서 멀리는 지리산까지 도전했고 13명의 회장과 11명의 총무가 심혈을 쏟았다. 15년 간 98년 48회 산행기록이 연도별 최고.

신입회원 영입 대대적 추진키로

경수회, 진경일 회장(20회)유임



낚시동호인 모임 경수회(慶水會)는 지난 2월 22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남포동 '미성초밥'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진경일 회장(20회·사진)과 류현회 총무(32회)를 유임시켰다.

이날 총회는 강동숙 고문(6회·강동숙이비인후과의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총회는 '신입회원 대대적 영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 경수회 주관 올해 낚시대회는 오는 4월 21일(일요일) 개최키로 잠정 의결했다.

200회 등정기념 낙남정맥 종주

둘둘산악회, 13명 1구간 매리교~서신어산 돌파

10년 전통의 둘둘산우회가 '200회 등반' 기념 낙남정맥종주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는 최일용 산악회장을 정점으로 남백우 산행대장과 회원 모두의 집념이 도출해낸 야심찬 이벤트.

'낙남정맥종주'는 낙동강변 동신어산에서 경남지방을 동서로 연결하는 지리산 영신봉까지 백두대간 끝자락 226km로, 앞으로 성취시킬 백두대간종주의 시금석으로 매김되었다.

지난 3월 3일 오전 7시 부산진역 앞에서 출발한 일행(최일용 회장 부부·남백우 산행대장·김순협 총무 부부·김기형 김성재 김일준 우덕현 이재근 한형우 장호수 손

용섭)은 수정터널과 백양산터널을 거쳐 매리교 앞에 도착했다.

오전 9시, 이곳에서 '둘둘산악회 200회 산행기념 낙남정맥 출정식'이라고 써여진 플래카드를 내걸고 출정고사를 지냈다('사람과 산' 부산지사장 곽수용씨 동행 취재).

들머리에서부터 가파른 산길을 차고 오른 일행은 동신어산자락이 대구로 이어지는 새로운 고속도로 공사로 잘려나간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다.

30여 분 숨을 몰아쉬며 오르막을 돌파하자 동신어산 정상이 코앞에 닿았다. 도도히 흐르는 낙동강과 건너편에 오봉산 토곡산 금



'200회 등정' 기념 낙남정맥 종주에 나선 둘둘산악회 회원들.

정산의 고당봉 금오산 등이 한눈에 펼쳐졌다.

일행은 이어 490봉~능선서점심식사~임도~생명고개(일명 새명고개·식수보충)~갈딱고개~신어산 정상(기념촬영)~서신어

산 정상~암릉·구름다리를 거쳐 가야CC로 하산했다.

나팔고개에서 산행을 끝내야 하지만 모두 지친 탓으로 골프장 정문을 산행끝머리로 삼았다. 총 15km 도전.

제22회동기회 임원 명단

고문
강봉기
강성봉
구자룡
김만성
김영수
김영진
김원주
김종수
노승철
박성열
박언표
박재상
손경윤

우덕현
유재진
이대선
이성모
이성철
이인준
허인석
황영환
 명예 회장
김학균
 회장
김도살

부 회장
김동욱
김진영
박승목
손연모
이민성
장무성
정상수
한태길
이철웅
변대석

이사
권상준
김명환
김동원
김명수
김성재
김일봉
강호일
노세현
박귀웅
박주완
변종호
서영훈

송철규
안진환
이상기
이상주
이상협
이재환
이정식
임성규
정갑열
장성덕
정용주
주우실
조봉국

한창길
박상갑
최일용
김일준
이웅규
배춘식

직능이사
재무 정도인
총무 김기형
기획 손용섭
실장 조홍기
감사 김병수

동호회장
산우회 최일용
기우회 임종수
낚시회 손용섭
골프회 김우홍

지역회
재경동기회 회장 안계환
재경동기회 총무 이재호
마산지역동기회 회장 강상대
울산지역동기회 회장 박홍조
울산지역동기회 총무 김정근



한라산 백록담 등정에 성공한 후 포즈를 취한 등열회 산꾼들의 능률한 모습.

칠순고개를 앞두고 있는 등열회(제10회동기회 산우회) 산꾼 6명이 눈속에 묻힌 한라산에 올라 노익장을 과시했다. 이 쾌거는 등열회 결성 당시 세운 '지리산 천왕봉·설악산 대청봉·한라산 백록담 등정' 3대 목표 중 마지막 목표로 성취한 것이어서 감회가 깊다. 등열회 정종만 회장을 비롯한 김계순 김종원 김한조 조상배 허 섭 동문은 지난 2월 26일 오전 9시10분 제주도 성판악휴게소를 출발, 4시간 고투 끝에 한라산(1,950m) 백

"한라산 품이야 눈감고도..."

칠순 앞둔 등열회 정종만 회장 등 6명 눈보라·칼바람 뚫고 백록담 등정 성공

록담을 등정했다. 이번 산행은 1400고지 이상에서는 아이젠이 필수적인 코스. 일행은 하산길을 한라산에서 가장 힘든 코스인 관음사 계곡으로 택하고 여러 차례 넘어지면서 5시간 만에 내려왔다.

박봉흠(21회) 기획예산처 차관 나라 살림 야전사령관 맡아

우리나라 살림살이의 씬쌈이를 알뜰히 챙기는 기획예산처에서 잔뼈가 굵은 박봉흠 동문(21회)은 예산실장 재임 중 최근 야전사령관격인 차관에 영진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13회)에 합격한 박 동문은 재무부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예산총괄과장 대통령경제비서관 이재국장 등을 거쳤다. 업무처리에는 간간하지만 원래 소탈한 성격이어서 부하나 친구들과 술자리에 어울리면 그럴 수 없이 편안하고 따뜻하다는 평. 세정관계로 고민하는 용마가족을 만나면 카운셀러가 되고 동창회 일에도 적극적이다.

클로즈업



박봉흠 동문



김인호 동문



김승대 동문

김인호(28회) 서울고검 검사 검찰사상 두 번째 장로 장립

부산지검 1차장검사를 거쳐 서울고검 검사로 발탁된 김인호 동문(28회)은 최근 현직 간부급 검사로는 두 번째로 서울 명성교회에서 장로장립을 받았다. 현직 검사의 장로장립은 대검 김승규 검사가 첫 번째. 김 동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10회)에 합격한 이래 대검 중수1과장·부산과 서울지검 부장검사·제주지검 차장검사·부산지검 1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김 동문은 평검사 시절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성경말씀을 묵상하면서 밤을 꼬

박 세워야 할 정도로 신앙심이 남달랐다. '교회가 변해야 사회가 변하다'는 논리가 김 동문의 신앙신조.

김승대(29회) 변호사 법조계 롤백... 헌법연구관에

검사출신 변호사로 재야법조계에서 활약하던 김승대 동문(29회)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1급)으로 발탁, 다시 법조계로 돌아왔다. 김 동문은 서울대 '전체수석합격'이라는 영광과 함께 전국의 매스컴에 회자된 후 이 대학의 법대를 졸업한 후 사시(23회)를 거쳐 검사가 됐다. 이후 서울지검 등에서 17년 간 검사생활을 한 후 변호사로 나섰고, 1년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최근 법조계에 롤백했다.

배승한(30회) 삼성전자 이사 '정보통신장비 중국 진출' 성공

삼성전자 정보통신장비 수주담당으로 8년 간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배승한 동문(30회)은 세계최대 통신시장인 중국에 한국CDMA 기술과 장비의 성공적 진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쏟아오던 중 지난해 '입찰성공'이라는 쾌거를 올렸다. 이 같은 배 동문의 업적은 회사는 물론 한국의 자존심을 세계에 떨친 것으로, 국내의 매스컴을 장식했다. 배 동문은 이 공로로 삼성전자 이사로 승진했고 '자랑스런 삼성인상'까지 수상. 용마인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관련기사 6면에

눈꽃 파노라마 한라산 등정 제25회 산우가족 20여 명 뒷세오름 밟아

제25회동기회 이오산우회 제124차 산행대회가 눈꽃 활짝 핀 제주도 한라산에 펼쳐졌다. 지난 2월 17일 이오산우회 문재인 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동문-가족은 한라산 서북릉 해발 1,700m의 뒷세오름 대피소까지의 등정에 성공했다. 일행은 907m 어리목광장에서 눈길을 헤치며 어리목계곡까지 진출했고 계단식 숲지대를 1시간 쯤 지나 사제비동산에 닿았다. 이어 돌길로 이어진 만세동산(해발 1,600m)~평지~백록담을 조망할 수 있는 뒷세오름대피소에 이르렀다. 뒷세오름대피소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일행은 하산을 재촉, 영실휴게소에 무사히 도착, 산행을 마쳤다. 일행은 제주시에 와서 고향이

제주인 정세훈 동문의 친지가 하는 음식점에서 '제주별미'를 맛본 후 오후 8시30분 마지막 비행기를 탔다.

영취산 올라

이철산우회 136차 산행 제27회동기회 이철산우회 제136차 산행대회가 지난 2월 17일 경남 양산시 근교 영취산(일명 취서산·해발 1,092m)에서 펼쳐졌다. 강태영 산꾼이 리드한 이날 산행에는 모두 13명이 참석, 극락암~백운암~갈림길~영취산 정상~신불산 대피소~가천리 간을 5시간30분에 걸쳐 실시했다. 제137차 산행은 3월 10일 실시했다.



제25회 동문·가족들이 눈꽃이 장관을 이룬 한라산 등반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눈산에 묻히고 동해바다에 흠뻑 젖고...

이팔산우회 태백산에

제28회동기회 이팔산우회는 지난 2월 17일 태백산에서 57차 산행대회를 열었다. 이원철 산우회장 등 19명은 이날 오전 11시20분 산행들머리인

고원휴게소에 도착, 장비 점검을 한 후 눈에 묻힌 태백산 등정길에 올랐다. 일행은 천제단~장군봉~당골~석탄박물관 코스에서 5시간 가까이 발품을 팔며 마음 설레이게 하는 2월 눈길산행의 참맛을 만

끽했다. 산꾼들은 귀가길에 경북 영덕 강구항에 들러 저녁식사를 겸한 단합회를 열었다.

꿀맛 같은 막걸리 한사발 시래기국밥에 정 듬뿍 제37회 산우회 창립 산행

최근에 출범, 활성화 담금질에 나선 제37회동기회 삼철산우회가 창립기념 등산대회를 열어 결속과 화합을 촉진시켰다. 지난 2월 24일 오전 삼철산우회 동문-가족 25명은 동아대 하단캠 퍼스 정문 앞에서 모여 장비점검을 받은 후 승학산~구덕산 꽃마울 코스의 산행을 펼쳤다. 일행은 구덕산 꽃마울에 도착, 시원한 막걸리로 목을 축인 후 시래기국밥과 두부 지짐 등으로 허기를 달랬다. 산우회는 3월 정기산행을 10일 금정산에서 열었다.

1 2월 연달아 금정산서 우정 만끽

일오산우회, 직전회장 표창·총무 봉사상

제15회동기회 일오산우회는 지난 2월 17일 금정산에서 김중광 회장 등 24명(동문 19명·부인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행대회를 열었다. 이날 산행대장은 이승남 동문이 맡았고 하산 후 범어사 절골의 '북한음식점'(26회 박장현 동문 운영)에서 단합회를 베풀었다. 경부합동산행대회 일정은 추후 결정,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새해 산행대회는 지난 1월 20일 금정산에서 강무상 동문 등 22명(동문 15명·부인 7명)이 참

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일행은 산행대회(산행대장 황춘식)를 마친 후 온천장 '할매곰탕집'에서 단합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중광 회장은 장종호 직전회장에게 공로패를, 황춘식 직전총무에게 상품권을 각각 전달하고 그간의 헌신과 봉사를 위로하며 박수로 격려했다.

이공회 20여명 토곡산에 제20회동기회 이공산우회는 지난 2월 24일 경남 양산시 원동 근교 토곡산에서 등산대회를 열었다.

강석근 산우회장이 주재한 이날 산행에는 20여 명이 참석, 지하철호포역 집결~택시이용~물금 화재리 도착~산행대장 장비점검~산행 돌입 순으로 실시됐다. 일행은 약 7시간 산행 끝에 원동역에 도착, 열차편으로 부산에 돌아와 단합회를 열고 해산했다.

반별이사로 참석률 높여 제39회 월례회 성황 제39회동기회 올해 1/4분기 정례회가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해암뷔페'에서 열려 설 기분을 미리 만끽했다. 안영준 회장(먼디파마코리아 부산지점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46명이 참석해 서로를 놀라게

했는데, 동기회 활성화를 위해 반별로 이사를 선임해 참석률을 제고기로 했다.

신임회장 신보성 선임 제39회 재경동기회 총회 제39회재경동기회는 지난 12월 1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산성진동횃집'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

회를 열고 신보성 동문(새턴투자자문)을 신임회장으로 뽑았고, 신동관 동문(현대자동차 양재영업소)을 총무로 선임했다. 이영수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1부에서 결산 및 예산안을 승인했고 임원을 개설했다. 집행부를 새로 출범시켰다. 2부에서 송년찬치를 벌였다.

가독동반 체육대회 개최기로

제37회 정기총회 의결 제37회동기회는 지난 2월 28일 오후 7시30분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사학연금빌딩 18층 '크리스탈뷔페'에서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정수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

회는 가족체육대회 개최·이사회 활성화·등산회 발족안·홈커밍 데이행사 준비체제 구축·수첩 제작, 배포 등 현안문제를 의결했다. 한편 총회에는 박홍관 은사가 초빙돼 사제의 정이 넘쳐 흘렀다.

전용회관 개관 · '용마의 날' 축제도

울산회, 매월 2일 한자리에 모여 얼굴 익히고 우정 쌓아

울산지역동창회 회관 개관식 겸 제1회 '용마의 날' 축제가 지난 2월 2일 오후 6시 울산 남구 신정1동 동창회관 건너편 '터미널식당'에서 열렸다.

김형수 회장이 주재한 행사에는 60여 명의 용마들이 참석, 우정을 나눴다. 이날 (주)효성 울산공장 총괄공장장겸 상무이사로 취임한 조장래 동문(23회)과 울산시장 출마예정자인 박맹우 동문(25회)도 참석해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용마의 날'은 역대 선·후배가 '매월 2일'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익히고 정담을 나누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울산동창회관은 응접세트를 비롯해 회의용 의자 20여 개와 TV 및 오디오 · 냉난방 · 실내공기청정 · 조리 등 시설을 갖췄기에 각 동기회에서 회의 등 집회



제1회 '용마의 날' 단합회. 울산지역회에서는 매월 2일마다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인다.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축하금품 협찬 감사합니다"

회관 개관에 즈음해 금품을 협찬한 동문은 다음과 같다.

▲협찬금 ▷김성규(10회)=50만원 ▷김종석(16회)=10만원.

▲협찬품 ▷조준탁(13회)=식품 ▷조광수(13회)=음료수 1상자 ▷장원주(14회)=음료수 1상자 ▷전부길(14회)=음료수 1상자 ▷박홍조(22회)=쇼파 1세트 ▷박병하(30회)=TV · 핫플레이트 · 공기청정기 ▷김인수(35회)=음료수 1상자 ▷이승렬(37회)=음료수 1상자 ▷이성기(41회)=음료수 1상자.



산우회 곧 결성키로 제12회 정기총회

제12회동기회는 지난 1월 25일 오후 6시 부산 동구 범일동 국제관광호텔 '천마홀'에서 2002년 정기총회(사진)를 개최했다.

남기용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동기회 활성화 촉진 일환으로 산우회(가칭)를 결성키로 했다. 출범시기 결정 등은 집행부에 맡겼다.

기도회 열고 열방축제 참여 제21회동기회 신우회

제21회동기회 신우회(기독교 동문 모임) 회원 일행은 지난 2월 22일 오후 7시 경남 통영시내 남

망산 공원에 있는 문화회관에서 열린 이곳 열방교회(시무 김종원 목사)의 열방축제에 참석했다.

한편 신우회는 지난 1월 19일 오후 7시 부산 금정산 가나안수양관에서 김종원 목사(통영 열방교회 시무)의 '평화의 고리(사도행전 1:8)' 주제의 설교를 중심으로 예배 및 기도회를 주관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20명의 동문 및 부인이 참석했다. 신우회는 윤승근 회장(안애교회 장로), 한인환 부회장(제3영도교회 장로) · 강석근 총무(해운대 침례교회 집사) 등 노고로 활성화되고 있다.

정진우 새 회장 선출 제5회동기회 총회

제5회동기회는 지난 1월 18일 오후 6시 부산 중구 광복동 '백송초밥'에서 2002년 정기총회를 열고 정진우 동문(정진우세무회 이사 대표)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문기 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 등 주요의안을 통과시킨 후 임원을 개선하고 부회장에 문정순, 총무에 김수현 동문을 뽑았다.

차상구 신임회장 선임 제9회재경동기회 총회

제9회재경동기회는 지난 2월 5일 서울 을지로 '안동장'에서 2002년 정기총회를 열고 차상구 동문(동양수산 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동식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는데, 부회장에 박남수 이승우, 감사에 서해양, 총무에 김기관 동문을 각각 뽑았다.

4월27~28일 부산서 경부합동바둑대회 개최

일오기우회 월례대회 1월 우승 김정환 · 정기문

제15회동기회 일오기우회는 지난 2월 23일 부산 중구 중앙동 대한통운빌딩 6층 '중앙바둑센터'에서 이추남 회장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대회를 열었다.

이날 이 회장과 박종석 동문이 각각 10만원을 협찬, 즐거운 뒤풀이행사를 벌였다.

한편 기우회는 지난 1월 26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동기회 장비 쟁탈 바둑대회를 열었다.

김관열 동문 등 20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A조는 1위 김정환(전 기우회장) · 2위 김삼용 · 3위 이순구 동문이, B조는 1위 정기문(전 동기회장) · 2위 박소남 · 3위 강무송 김형영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특히 이날 기우회는 오는 4월 중 재경 동문 초청 경부합동바둑대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어 정창환 동기회장(20만원)과 손부홍 동기회관운영위원장(10만원)의 특찬금을 뒤풀이에 투자해 즐거움이 배가 됐다.

제27회 신임회장 김태우 이판세 회장 등 셋 표창

제27회동기회는 지난 2월 22일 오후 7시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해암 뷔페'에서 2002년 정기총회를 올해 첫 이사회와 겸해 열었다.

이판세 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동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경진 총무의 사회로 진행,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했고 임원개선을 통해 김태우 동문(변호사 · 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회장은 내년 홈커밍데이행사(졸업 30주년 기념) 준비위원장을 겸직하게 된다.

이날 김 신임회장은 유공자 표창에서 이판세 회장에게 감사패를,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에 크게 기여한 최경룡 동문 · 해운대회 강봉호 회장 · 서사학회 및 기우회 윤지한 총무 등에게 각각 공로패를 수여했다.

주기민(16회) 경남중 교장 서여고 교장으로 영진 경문회 운영위원 전원 전보
부산권 교직원들의 친목회인 경문회 회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전원이 최근 단행된 부산 시교육청 정기인사 결과 승진 또는 전보됐다.

주기민 회장(16회 · 사진)은 모교 경남중 교장에서 서여고 교장으로 영진됐다.

간사인 공흠일(14회) · 강영호(18회) · 김동대(20회) · 김종석 동문(24회)은 각각 남문초등학교 교장 · 반여중 교감 · 남부교육청 재무과장 · 문현여고 교감으로, 총무인 김한원 동문(20회)은 부산 중앙여중 교감으로 승진해 취임했다.

또 운영위원인 신성우(13회) 학장여중 교장은 장안고 교장으로, 정장웅(14회) 부산정보여고 교장은 남산고 교장으로,

김순철(15회) 백운초등교 교감은 좌성초등교 교장으로, 배 박(15회) 영선초등교 교장은 승학초등교 교장으로 각각 옮겼다.

그리고 차무언(15회) 덕도초등교 교장은 반안초등교 교장으로, 김철곤(16회) 부산진여중 교장은 학장여중 교장으로, 조희성(16회) 장산초등교 교감은 상당초등교 교감으로, 박양기(19회) 가야여중 교감은 산업과학고 교감으로 각각 전보됐다.

조규태(14회) 거제고 교장 이봉구(20회) 거제중 교장

한편 조규태(14회) 거제중 교장은 거제고 교장으로, 이봉구(20회) 거제고 교감은 거제중 교장으로 각각 영진됐다.

제33회 동기회 임원명단

<본부동창회>
부회장 박명진
이 사 권봉수 이호인

<동기회>
회 장 송중헌

고 문
김법영 김정욱 김진용
박명진 옥중훈 윤성국 최정현

수석부 회장
배중헌

부 회장
강주태 박태중 이광호
이순환 이윤조 이호인

감 사
남경태 민병현

이 사
고영흠 고창성 권봉수
김 일 김동환 김시홍
김종만 김중택(창원지역 회장)
김진일 김태균 김호생
박상국 박중철(김해지역 회장)
박태우 서길원 윤상현

이기석 박경호(울산지역 회장)
이영호 장정식 정세영
정재휘 주기훈 주영민
진태호 천탁기(거제지역 회장)
최웅남 홍주성 황규태
임명제 유영배 이석희
김재선 박영배 이종원
김경식 지창근 추현민

총 무
이 훈

<재경동기회장>
회장 임철순 총무 최태준

<씨 클>
삼솔회
회장 백수현 총무 공진우
삼삼산우회
회장 강주태 총무 김종만

<창설예정씨클>
테니스 : 이석희 (017-554-5032)
블 링 : 이 훈 (011-563-9682)
골 프 : 이광호 (011-9558-0996)
바둑 : 관심을 가지신 동기분을 초대합니다.

동기회 홈페이지 개설 : www.kn33.com

미국·중국에서 날아온 짧은 사연 긴 우정

'용마기상' 미시간 호숫가에 내려피고 (下)

우리 제16회는 오는 4월 20일 졸업 후 40년 만에 모교에서 다시 만난다.

이 만남을 설레임 속에서 기다리는 나는 18세 청년으로 돌아간다. 작년 9월 중순에는 의학학술대회 참석차 LA에 가서 김응상·정연웅군(김경삼군과는 전화밖에 못했지만 언제나 반갑다)을 만나, 한없이 즐거운 며칠을 보냈다.

유정호

제16회·시카고회 회장

이민생활 속에서는 이런저런 사유로 별별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많지만, 동문 선배들과 만나면 어떤 모임에서도 맛보지 못하는 허심탄회하고 부담 없는 시간이 된다.

긴 세월 동안 나의 의사로서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은 해마다 11월이면 짬을 내어 아들이 다니던 예일대학교의 풋볼 경기를 보고 뉴욕에 가서 고교 동기들을 만나는 일이었다. 지난 2, 3년을 못갔더니, 친구들이 왜 안 오느냐고 전화로 성화를 부렸다.

고교 1학년 때다.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가 경남고교 음악회에 경남여고생이 찬조출연하여 피아

노 연주하는 것을 보고는 "내년에는 정호 네가 해 보아라"고 해 김종일 음악선생님(후에 선명회 합창단 지휘자 역임)과 의논 끝에 2학년때 평소 억지로 갖고 있던 피아노곡을 경남고교 음악회에서 연주했다.

여학생들은 '피아노 연주' 박수 선배들은 골목서 묵사발세례 그 덕분에 인근 여학교의 여학생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필자의 교회 장로 집합식 기념촬영. 앞줄 왼쪽부터 신지재(16회)·필자·배준환(11회)·타고 친구. 뒷줄 왼쪽부터 문내연(16회)·조석재 선배(9회).

대신 3학년 선배들에게 납치(?)돼 골목으로 끌려가 두 차례나 묵사발이 되게 터졌던 일이 지금도 선하다.

나의 이런 음악애호 덕분에 피아노를 전공한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당시 나는 의과대학을 지망했으나, 수학과 세계사(민성기)와 국사(백재선·김석희) 과목을 좋아했다. 김석희 선생님은 달리 오갈데 없는 해골도막 같은 연대 인물 서명(書名) 등 파편들을 주입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던 그 시절에도, 까까머리인 '똥구두'들에게 역사관과 역사의식의 중요성을 가르치셨다.

고려 공민왕에게는 학설 중에 '고자설'도 있다는 이야기로 점심시간 후에 조는 우리를 깨우기도 했다.

마음에 드는 부산여고 출신 여학생을 뒤늦게 나타난 다름 놈(?)에게 새치기 당한 친구를 위해 함께 공작하던 일, 그리고 그 명령의 아가씨는 이제 어떻게 변했을까?



김영삼 본부고문(3회)·앞줄 가운데이 대통령 임기 전 시카고를 방문했을 때 기념촬영. 앞줄 오른쪽 김봉현 선배(5회)·왼쪽 조석재 선배(9회)·뒷줄 왼쪽부터 필자·김무정 동문(16회).

마음은 아직도 청년이지만, 어언 육순문턱에 올라서서 되돌아보니, 아이들(LA의 딸과 예일대학을 나와 지금 시카고대 대학원에서 의학·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아들 재원·친구들이여, 현모양처가 될 며느리감이 있으면 연락 다오)이 이제 장성하여 제 갈 길

을 가고 있다. 우리 내외만이 덩그러니 남은 시카고의 집을 나와 미시간 호숫가를 달릴 때면 끝없는 추억의 나라로 나를 인도한다.

동기생 신지재 유혹(?)에 미국 끌려와 30년간 의사로

그런데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신경내과 의사가 아닌가? 그리고 보니 이곳 광활한 바다와 같은 미시간 호숫가에 위치한 시카고에 정착한 지도 어언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1974년, 나는 서울의대를 나온 친구이자 동기생으로 현재 시카고 근교에서 정신과 의사로 있는 신지재군의 유혹(?)에 걸려 미국으로 건너와 신경내과 의사로 살고 있다.

기억에 남은 일은 김영삼 선배님께서 대통령 임기 전에 시카고를 방문했던 일이다. 당시에는 김선배님께서 전두환 정권의 독재에 맞서다가 강인한 의지로 단식투쟁을 하고 미국에 망명하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과 협력하여 민주화투쟁을 이끌고 있던 때였다. 그해 시카고 방문은 우리 동문들의 큰 자랑이었고, 시카고 교민사회에 조국의 민주화를 위한 열정을 불지폈다.

YS 시카고 방문 "큰자랑" 인재배출 역량 지속시켜야

내가 그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친형제처럼 의논하고 격려하여 준 동문 선배님들의 큰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자주는 못 만나지만, 시카고 지역의 동문들은 김홍사가 있을 때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같이 만나 형제와 같이 기쁨과 슬픔을 나눈다.

그리고 동창회보를 볼 때면 한국에 있는 보고 싶은 동기생들과 선배님들을 멀리서나마 만난 듯이 반갑다. 아쉬운 것은 입시제도의 변경 이후 미국과 시카고에서 만나는 용마 후배들이 점점 줄어간다는 점이다.

모교와 동창회가 한국과 세계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밑거름이 되는 큰산실(産室)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여망은 시카고의 동문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글>

중국 용마가족 '신바람 단합회'

'삼성인상' 받은 배승한(30회) 첫 용마상 수상

중국회는 지난 1월 19일 오후 6시30분 북경 Kempinski 호텔에서 부부동반 13명이 참석, 임오년 두 번째 단합회를 열었다.

박해득 회장(24회)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우정과 친교를 나누는 가운데 '중국 CDMA장비진출'을 성공시켜 임원승진에 삼성인상을 수상한 배승한 동문(30회·삼성전자)에게 제1회 용마상을 수여하고 축하하기 위해 열렸다.

부인들 뒷얘기 쏟아져 이 용마상은 중국지역동창회가 중국에서 용마인의 기상을 떨친

동문에게 주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배 동문이 첫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홍성표 동문(23회) 부인의 유화전 뒷얘기를 비롯해 배승한 동문 부인의 독수공방 사연, 배한석 동문(38회) 부인의 새로운 사업얘기 등이 정겨움을 더해 주었다.

남편들 엽기적 행태 돌출 한편 이날은 엽기적인 사건(?)이 속출한 날로 기록됐다. 평소 술좌석에서 속도전을 퍼던 홍 동문이 느낌보전을 편다든지, 취중



중국지역 용마가족들의 새해 두 번째 단합회.

잠자기로 소문난 박 회장이 멀뚱 멀뚱 한다든지, 부인들이 2차를 요구하는데도 남편들이 되레 귀가를 재촉하는 등 의문투성이 행보가 쏟아졌다.

부인들은 이를 두고 '보전진을 위한 1보후퇴' 아니면 '배갈로 다져진 체력이 한계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고 한마디씩 했다.

어디서 무엇을

朴春敬=1월 12일 남태평양호텔에서 차녀 소현양 결혼
金昱經=1월 11일 별세, 부산 영락공원에서 13일 영결식

제 10 회
朴鐘文(石芭)=부산 남구 대연6동 1761-10, 서예가, 051-646-1882, 011-845-1882
文昌海=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 215동 1109호, 051-623-9700, 성원화학 대표, 051-323-4369

李基敦=경남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10 코오롱타운 116동 1702호, 055-297-5725
孫永紹=경남 밀양시 교동 635, 055-355-3933, 추하시습농장 대표
金太祚=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455 신개금LG아파트 214동 1804호, 051-896-0510
金平淳=2월 23일 서울 소망교회에서 장녀 정수양 결혼
朴星昊=2월 3일 서울 강남문화센터 1층에서 차녀 결혼
李根泰=1월 11일 부친 별세
全圭三=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금호아파트 152동 1402호, 031-272-9399, 0505-700-9399
尹才謨=(직장전화변경)02-2262-

2211
崔炯伯=오는 5월 25일 오후 5시 서울 만리장성에서 차남 결혼
제 11 회
閔丙基=(자택이사)부산 남구 문현3동 266 (2/5), 051-631-6231
洪淳文=(자택이사)부산 수영구 망미1동 현대한누리아파트 103동 508호, 051-752-4416
朴鍾述=1월 26일 롯데호텔에서 둘째 아들 결혼
姜龍大=(자택이사)부산 동구 좌천1동 715-14 태정빌리지 201호, 051-644-8088
吳完洙=3월 16일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장남 치훈군 결혼.

마산창원지역동창회
여성국(17회)= 대우자동차 부사장겸 본부장(지난 329호 '어디서 무엇을' 중 마산해양수산청장 직책을 바로잡습니다.)

제 6 회
金成守=(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명장SK아파트 110동 1504호, 051-527-3503
김활찬=위생병원에서 모친 별세

제 9 회
盧英燮=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1차아파트 7동 805호, 02-865-1223

劉今烈=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석봉마을 대동아파트 502동 904호, 055-329-5341
李奉嫻=경기 군포시 당동 874 주공아파트 204동 803호
李潤熙=서울 서초구 잠원동 66 반포한양아파트 3동 701호, 02-596-4915
李昌俊=경기 용인시 포곡면 염문리 산36-1 베네치아아파트 105동 1206호, 031-302-5052
車相九=(자택전화변경)02-749-5408, (상호변경)동양제강(주)에서 동양수산(주) 대표이사, 02-589-1707
趙善滄=지난해 12월 29일 금정문화회관에서 차녀 영미양 결혼

경팔회 이런 일 저런 일

골프 이현문·유문자 우승

서울에서는 골퍼모임인 잔디회(회장 이창근) 제108회 월례회가 지난 3월 7일 안성CC에서 남녀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남자부 우승은 이현문(91타-2)·준우승은 강성태·3등은 박지병·니어리스트상은 윤태영·행운상은 김태규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또 여자부 우승은 유문자(89타·3)·준우승은 정수자·니어리스트상은 정종욱·행운상은 신성자씨가 각각 차지했다. 한편 제109회 대회는 오는 4월 4일 오전 10시6분부터 같은 장소에서 6팀 도착순으로 실시할 예정.

바둑 3월대회 우승 배우원 2월에는 이유환 행운남아

바둑모임인 팔선회(회장 이유환)는 지난 3월 2일 오후 1시30분 일품기원에서 월례회를 열었다. 대국결과 우승은 배우원·준우승은 최대영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이날 1차는 이 회장으로,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 모범을 보였고, 배우원 최대

영 신현주 윤태영 김진석 이창근 동문이 차례로 도착했는데, 강성태 동문이 혈레벌떡 골짜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창근 동문이 왕따(?)를 면했다. 한편 2월 대회 우승은 이유환·준우승은 이종수 동문이 차지했다.

도봉산 올라 호연지기 펴

산우회는 지난 3월 23일 김영철 회장을 비롯 17명의 동문이 도봉산에 올랐다. 산우회는 1주일 전인 같은달 16일에는 북한산을 올랐고, 오는 30일에는 관악산 산행을 실시한다. <메모> 도봉산은 북한산국립공원 안동북쪽에 자리잡고 있다. 최고봉인 자운봉(740m)을 비롯해 만장봉 선인봉 주봉 오봉 우이암 등을 거느리고 있는데, 암벽이 너무 아름다운 산이다. 선인봉 앞 벽등산 루트만도 박쥐코스 등 무려 37개나 된다. 북한산과 도봉산 지역에는 가장 오래된 전축사를 비롯해 망월사 회룡사 등 60여 사찰이 있고, 도봉계곡을 위시해 추추 오봉 용어천 등 아름다운 계곡도 많아 산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엄덕량 부산 산우회장에

부산의 경팔산우회는 지난 3월 19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우갈비집'에서 2002년 정기총회를 열고 엄덕량 동문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김문각 회장은 산우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주재, 결산보고 승인과 임원개선 등 처리한 후 소중전을 기울이며 우정을 확인했다.

경연회 친목회 단신

바둑·등산·골프 등 열심히

경연회(제10회재경동기회) 각 친목회 3월 활동이 '하급수업시간표' 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골퍼모임인 경록회는 28일 낮 12시 자유CC에서 새봄맞이 그린샷을 날렸고, 강남회는 26일 낮 12시 동기회 사무실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바둑을 즐겼으며, 여의도회는 19일 낮 12시 옛골에서 정담을 나눴다. 또 사니조아회는 17일 오전 10시 서울대 정문에서 만나 근교산 등산을 했고, 안산회는 12일 낮 12시 안산 중앙역 다리목추어탕집에서 회포를 풀었으며, 정우회는 10일 만났다. 바둑 모임인 동수회는 9일 오후 1시

동기회 사무실에서 기량을 겨뤘고, 강북회는 5일 낮 12시 중앙극장 앞 평래옥에서 소중전을 나눴다.

제15회 지역·직능회 동정

3-5 부산반창회 결성추진

△3학년 5반 부산반창회 창립총회가 오는 4월 12일 개최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5일 부산 동구 초량동 '사해방'에서 김판열 박천호 손부흥 이현우 동문이 모여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부산을 비롯, 울산 대구 경남지역 거주 동문들을 회원으로 하는 반창회를 결성키로 뜻을 모았다. 이날 손부흥 동문이 30만원, 재경 3·5회(회장 허광집)에서 10만원을 협찬, 반창회 출범준비의 '종자돈'으로 쓰게끔 했다.

3·8회 중국 임종구 부부 참석

△3·8회(회장 최병우)는 지난 3월 8일 부산 중구 초량동 '홍성방'에서 45차 정례회

를 열었다. 부부동반 20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는 중국 광둥성 동산시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임종구 동문(위구실업·BM 유한공사 총재)이 부인과 함께 참석해 환영찬치를 곁들였다.

신년회 겸 41차 정례회

△사하회(회장 김창규)는 지난 1월 22일 오후 7시 부산 사하구 하당동 '동백숲갈비집'에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겸한 4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죽마고우'에서 15명 모여

△화천회(회장 김판열)는 지난 1월 8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죽마고우'에서 회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 겸 정례회를 열었다.

고태연 입회 환영회 열어

△이화회(회장 이추남)는 지난 1월 8일 '오륙도의 집'에서 고태연 동문 입회 환영회를 겸한 정례회를 개최했다(9명 참석).

西安·華山절경 심취... '3빠' 혼쫓

경사회(14회 동문 모임) 회갑기념 중국나들이

중국 서안공항의 면세점은 관광객들로 붐볐다. 양주 담배 토산품 등을 파는 코너는 시끌벅적하다. 소란스런 저쪽에선 어떤 관광객이 울상을 짓고 어쩔 줄 몰라 한다. 면세 물건을 살 때 여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한국인의 여권은 이곳 암거래상에서 비싸게 거래된다고 한다. 특

진시황이 72만 명을 생매장했다는 병마용갱 발굴 현장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듯하다. 인공호수 가운데 지은 아방궁 침소를 바라보며 로마시대의 네로처럼 역사적인 폭군들의 공통점을 느낀다.

72만명 생매장한 병마용갱 양귀비 염혼 깃든 화청궁 관광

양귀비의 염혼(艶魂) 깃든 화청궁 온천지. 양귀비가 암내를 해산탕 성진탕 상식탕으로 씻어내고 연화탕에서 현종과 합탕했다는 가이드 설명에 양귀비 요강이 어느 것이냐고 묻는 친구도 있고, 측천무후에게 손발이 잘린 채 뚱뚱에 빠뜨려졌다는 영과공주의 원혼도 달래보고...

오악 중 하나인 화산 (2,160m)

오운봉 정상에서 A군은 수직 바위와 수목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풍광을 보고 '동양화는 이런 것'이라고 감탄한다.



경사회 용마가족이 중국여행 길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법사 제자의 초상화도 있다. 아직도 서로 "아무개야" 라고 부르는 동기생들- 여행 중 식탁에서 나누는 화제는 이국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도 밑반찬과 양념이 된다. '빼갈' 마시며 '쌍시웃' 튀어나와도 흥겨운 안주가 된다. 워트 넘치는 이런 대화는 여행의 활력소.

동기생 허물없는 입담은 술안주 268가지 만두중 16가지만 맛볼 필생산이 많은 서안의 특산물 '자오즈(만두)'는 268가지라는데, 16가지를 먹어보았으나 서태후가 피난 중에 먹어보고 감탄했다던 그 맛을 느낄 수는 없고...

15억 인구의 거대한 중국을 코끼리 다리 만지듯 보고 왔을 뿐이지만, 오랜 역사의 발자취와 놀라운 자연의 모습, 아직도 가련한 인생들, 그리고 잘 사는 나라로 지향하는 집념을 잊을 수 없다.

(han1211@komet.net)



한창수

제14회·필드통상 대표

히 미국 비자 찍힌 것은 700만~1000만원 정도로 30분 이내 밀매조직에 넘겨진단다. 가이드 설명에 우리 총무 B군이 한마디 한다.

"모두 단디이들 하소이, 세상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데는 그래도 마누라뿐인기라. 저승 먼저 가면 곡(哭)도 해줄끼고..."

어느새 머리가 허옇게 센 경사회(14회) 12쌍이 '회갑을 기념'하여 지난해 9월 11일부터 4박5일로 해외나들이를 했다.

미국 비자 찍힌 여권은 700만~1000만원 암거래

중국 여행을 몇 번 하면서 익히 들은 이야기이지만, 중국에는 눈 빠지는 관광·귀빠지는 관광·발 빠지는 관광이 있다. 눈과 귀와 발을 혹사하는 관광이라는 뜻이다. 경치가 빼어나 볼거리가 많은 계림관광은 연방 사방으로 눈을 돌려야 하고, 자금성과 이화원, 만리장성 등 여기저기 가볼 곳이 많은 북경관광은 발이 성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의 현장인 중국 옛 수도 장안(서안)을 둘러 볼 때는 귀가 아프도록 가이드 설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중국 오악(五嶽) 중의 하나인 화산 등정까지 코스에 넣고 6대 고도 중 하나이며 실크로드의 출발지였던 진시황의 도읍지 서안을 선택했다.

일본 유타케산에 용마기상 심어

제30회 부부동반 18명 4박5일 원정산행

제30회동기회 산악회가 부부동반으로 일본 유타케산(해발 1,583m) 등정에 나서 용마의 기상을 펼치고 돌아왔다.

신영주

태연엔지니어링 대표

제30회 산악회 4박 5일 일정(2001.12.30~2002.1.3) 일본원정단은 김병기 산악회장 부부를 비롯, 용마가족 18명(부인 8명 포함)과 특별회원 2명(최경현·부경대·이영탁·대동대 사진학과 강사) 등 모두 20명.

여자 온천욕·남자 비그프림

△1일째 : 일행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15분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초고속 비틀호편으로 출국. 오후 1시30분 일본 후쿠오카 하카타항에 도착. 마중 나온 일본 상산회(자원봉사) 두 회원 안내로 시내 관광 후 유학온천지인 스키유의 한 여

날 12시30분 정상에서 점심식사. 김장김치가 꿀맛이었다. 오후 3시30분 하산(총 5시간40분). 여관에서 온천욕과 노래파티



일본 유타케산(1,583m)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제30회 용마가족.

관에 여장을 풀었다. 저녁식사 후 노래자랑을 벌였고 부인들은 온천욕으로, 남자들은 '비아그라포럼' 개최.

가지고 간 김장김치 꿀맛

△2일째 : 오전 9시50분 해발 1,583m 유타케산 도전. 이 산은 9부 능선부터 봉우리가 2개로 갈라져 있는데 고도가 똑같다. 낙타봉 같은 이 산에는 갈대와 세죽으로 덮여 있고, 눈꽃이 장관을 이뤘다.

등으로 제야잔치.

안개 심해 아소산 영상관광

△3일째 : 일본에서 새해를 맞고 일본의 설날 음식으로 아침식사한 후 활화산인 아소산으로 갔으나 심한 안개로 허탕. 점심식사 후 박물관에서 영상으로 아소산관광(장관 중의 장관) 대신. '도시 속의 도시'라는 캐널시티 하카다 관광. 한 팀은 쇼팽에, 한 팀은 라면과 술 등 먹기판에 나섰다.

눈바람 피해 시모노세키로

△4일째 : 2002년 1월 2일 귀국을 서둘러 심한 눈바람으로 선박이 묶여 일본통(?)이라는 동문 등이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시모노세키에서 부관페리가 밤에 출항한다고 해 이동. 점심식사 후 쇼팽에 나섰고 오후 7시 부관페리호에 몸을 실었다. 도시락과 컵라면으로 저녁요기. 배가 많이 흔들려 나이트클럽은 휴관이란 다.

깊은 밤, 옆방에서 어느 선녀가 "자기야, 옷 다 벗고 자면 안돼." 그러다가 잠잠해진다.

눈시울 적시며 아쉬운 이별

△5일째 : 배 안에서 아침을 맞는다. 오륙도 저쪽에서 희망찬 일출이 장관을 이루며 솟는다.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잘가거라!" 작별인사. 강원도 원주에서 왔던 함주혁 부부가 눈시울을 달구며 떠난다. 여행길에 이것저것 챙기느라 애쓴 왕순모 부부, 안내와 통역을 맡은 김상직, 공금 때문에 작업복만 입고 다녀야 했던 배경조, 뒷바라지한 김병기 회장, 끝까지 협력을 잘 해준 단원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기대와 감동과... '홈커밍' 눈앞에

홈커밍데이축제가 꽃망울을 터뜨릴 체비를 하고 있다. 청운의 꿈을 동계구름처럼 파워풀리던 그때의 용마들이 모두들 자기 나름대로 한 보따리씩의 '성공'을 들고 마음의 고향 모교에 모여들면 온 교정은 감동으로 출렁거리게 된다.

올해는 제6회 50주년을 비롯해 제16회 40주년 및 제26회 30주년 행사가 오는 4월 하순~5월 중순 원숙미를 자랑하며, 제36회가 오는 5월 중순 졸업 20년 만에 '구덕동산'에서 첫 '홈커밍데이'의 테마를 잡고 뜨거운 포용을 나눈다.

4개 동기회, 성공적 개최 위해 준비 박차

제6회 동기회
5월 중순 예정

제16회 동기회
4월 20~21일

제26회 동기회
4월 27~28일

제36회 동기회
5월 18일 확정

임경택 회장은 지난 3월 중순 동기회사무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번 행사의 일정과 준비 문제를 협의했다.

이날 회의는 행사일을 5월 중순 토~일요일로 정하고, 모교 방문 행사와 단합회 준비에 대해서는 준비위원회를 구성, 추진한다는 원칙을 결의했다.

제16회 동기회는 졸업 40주년 행사를 오는 4월 20~21일 개최기로 했다.

윤영식 회장은 최근 고문·이사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일정을 결정했으며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행사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준비위원장에 차상영

고문을 선임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미주지역 동문 10여 명이 각각 부인 등 가족과 함께 모교를 방문하고 전국 관광투어에 나설 계획이다.

제26회 동기회는 오는 4월 27~28일 행사를 치른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1~2부 축제를 4월 27일 오후 5시 30분부터 해운대 조선티치호텔에서 거행하고 다음날인 28일 오전 모교를 방문, 기념촬영을 하고 교정을 둘러본 후 행사를 마무리짓

기로 했다.

제36회 동기회는 오는 5월 18~19일 20년 만에 처음으로 모교를 방문하는 '홈커밍' 축제를 펼친다.

최승호 회장은 지난 3월 22일 정기총회를 주재, 당초 행사일정을 5월 초순으로 정했으나 선배기에서 이미 일정을 결정된 후여서 5월 1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특히 첫 행사인 만큼 전체 동문-가족 400여 명을 초청한다는 방침에 따라 홍보를 적극써 성공적 개최를 도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모교에서 열린 제15회 동기회 홈커밍 행사.

김경진군 등 3명 용마장학금

경남고 제56회·경남중 제59회 졸업식 거행

올해 모교 졸업식에서 '미래의 용마' 845명이 새로 배출됐다.

경남중학교 제59회 졸업식이 지난 2월 16일 오전 학교 체육관에서 주기민 교장(16회) 주재로 열려 342명의 용마가족을 배출했다.

이날 송우원군(3-6)이 종합최우수상을, 김동현군(3-8)이 동창회장상을, 이정석군(3-7) 등 5명이 경문회장상을 각각 받았다.

한편 경남고교 제56회 졸업식(사진)이 같은 달 15일 오전 학교 체육관에서 김향운 교장(13회) 주재로 열려 503명을 배출했다.

이날 조대제 본부동창회장(7회·협성개발 대표이사)은 격려사에 앞서 김경진·한중운·김건우군 등 3명에게 용마장학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어 이상택장학금(13회·재경동창회장·효산의료재단 이사장)

은 장현덕군이, 고 이종렬 동문(5회)의 뜻을 기리는 연당장학금은



37회 재경회장 남무현 유임

제37회 재경동기회는 지난 1월 22일 오후 7시 서울 지하철 압구정역 부근 '진동희집'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남무현 회장(베리텍 대표)을 유임시켰다.

김도현군이, 최성호장학금(17회·최성호피부비뇨기과의원장)은 김희진·안성우·안성욱군이 각각 받았다. 본부동창회장상은 김경진, 경문회장상은 심호준·장현덕군이 각각 수상했다.

(준비위원 남무현·김상현·전재열) 등 주요의안을 의결했다.

제33회 홈페이지 www.kn33.com 신임회장 송종현 선출

제33회 동기회는 지난 3월 12일 오후 7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대림뷔페'에서 2002년 정기총회를 열고 송종현 동문(유원통상 대표·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임했다.

김범영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송 신임회장은 앞으로 지역회와 직능회 결성에 최선을 다해 '친목 단결 화합'이 넘치는 동기회로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특히 송 회장이 고창성 동문의 주도로 홈페이지(www.kn33.com)를 구축했다고 발표하자 격려의 박수가 쏟아졌다.

'홈커밍' 신나는 이벤트 개발 제28회 이사회 결의

제28회 동기회 올해 첫 이사회가 지난 2월 19일 오후 7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제일뷔페'에서 열렸다.

이만수 회장(부산방송 보도국장)이 주재한 이날 이사회는 정인식 홍보이사의 사회로 진행, 2001년 결산보고와 2002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 주요의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특히 이사회는 졸업 30주년 홈커밍데이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전 동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도출하는 흥미롭고 유익한 이벤트를 다수 개발하는 등 집행부가 중심이 되어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을 결의했다.

제29회 회장 박기찬

제29회 동기회는 지난 2월 27일 오후 7시 부산 동래구 온천동 '관포

Hits'에서 2002년 정기총회를 열고 박기찬 동문(진홍상사 상무이사·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정유성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동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두진 총무의 사회로 진행,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권총무 유임).

홈페이지 구축키로 제41회 2월 정례회

제41회 동기회 2월 월례회가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부산 사하구 하단동 '데지꿈(박인재 동문 운영)'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류지섭 회장 주재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집행부가 내놓은 △연회비(일시불 11만원) 남부 계획안 △홈페이지 구축안 등 주요의안을 의결했다.

연회비 경우 이날 참석자 전원이 2월 말까지 총무에게 납부기로 했다.

홈페이지 경우 재경동기회와 협의, 3월 월례회까지도 메인을 확보한 후 구축키로 했다.

회보 광고 협찬 안내

동문 여러분을 광고주로 모십니다.

- 크기 · 금액
- 하단 전체(8.2cm x 25cm) : 400,000원
- 하단 1/2(8.2cm x 12cm) : 200,000원
- 하단 1/4(8.2cm x 6cm) : 100,000원

- 내용
- 업체소개, 주요 취급품목, 대표자명(사진포함)
- 연락처, 기타 알리고 싶은 사항

- 문의사항
- 경남중고동창회 (051)245-7551~2

GOLF · 콘도 · 헬스 회원권 매매

'첫마음'

한번은 다 바치고 다시
쳐올나무로서 있는 벗들에게
저마다 지닌
상처 깊은 곳에
맑은 빛이 숨어있다.
첫마음을 잃지말자
그리고 성공하자
참혹하게 아름다운 우리
첫마음으로

아시아드, 에이원C.C 회원권분양주관사
GOLF SET 도소매 중고채 고가매매

서면GOLF : 부산시 진구 부전2동 524-13
전화: (051)803-0654~5, 804-1811, 805-0707
807-0707, 817-0606~8, 819-0606, 819-0707
080-201-7777, FAX: 804-1810

H P: 011-854-0707 대표 여성 열(17회)
http://www.smgolf.net
E-mail: seomyengolf@hanmail.net

충무GOLF : 서구 충무동1가 10번지 여성군(24회)
전화: (051)241-4344~5, 254-0707, FAX: 241-6643